

'5·18 부정' 진실화해위원장 역사인식 '후폭풍'

김광동, 과거 논문서 "북한 개입 의혹" 발표 드러나 오월단체 "김 위원장 임명 정부 역사 진실 역행" 반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5·18 역사인식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이 드러나 오월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 제기되고 있는 논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 한국하이테크사이언티가를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와 대비되는 주장이 수록돼 있다.

논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비판하며 "광주 사건에서 2천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옹남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를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

북한군 개입설의 경우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개최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그간 지만원이 '북한특수군 제1광수'라고 주장해온 5·18시민군 '김군'의 정체가 차복환씨임으로 드러나 그 힘이 크게 떨어졌다.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역시 지난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들은 국가수와 전두환 전 대통령 민·형사 재판부에서도 인정된 내용을 왜곡하는 인물을 진실화해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인데 그 수장에 오월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가 13일 오후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정한 것은 대통령이 말한 오월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황 회장은 "5·18을 겪은 사람들

은 아직도 끊임없는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고통받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선 악의적으로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우리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가 했던 발언이 시정될 수 있도록 촉박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1천430억 범죄수익금 은닉 자매 '덜미'

광주경찰청, 30대 구속영장...징역살이 아버지 대신 도박사이트 운영

징역살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뒤이어 범죄를 이어가고, 비트코인 1천43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자매들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 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

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을 빼돌려 숨기는데 가담한 A씨의 언니(30대)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블랙

박스 운영하고, 자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압송 전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시설 면회가 가능한 현지 사정을 이용해, 검거된 아버지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지시받은 딸은 아버지 대신 전면에 나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였다. 이런 수법으로 비트코인 1천800개, 당시 시세로 1천4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딸은 2020년 태국 불법도박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경찰은 아버지 B씨 검거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딸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일부만 압수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사건은 이렇게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으나,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A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조사결과 A씨가 지인의 명의를 이용

해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복귀해 광주경찰청에서 비트코인 압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사이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천800개 비트코인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사라진 비트코인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복기자

금융기관 직원 사칭 외국인 보이스포싱 조직 일망타진

전남경찰, 이집트 국적 등 7명 검거...불법채류 중 범죄 가담

해외에 총책을 두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한 불법채류 외국인 보이스포싱 조직이 검거됐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빙자해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등 불법채류 외국인 7명을 1년간의 추적 끝에 동두천 등 전국

에서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1명은 강제추방했다. 도주한 해외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판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검거된 A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집트 국적 외국인들로, 이집트 내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하며 채류기간을 연장해 오다 기

간이 끝나자 불법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 총책을 두고 계좌모집, 출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며 범행에 이용한 계좌를 외국인들에게 개당 150만원에 사들여 해외에 있는 공범에게 제공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 대금에 섞어 보내는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해외 상선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계좌 모집책인 A씨는 자신이 범

행으로 얻은 현금 다발과 고급 승용차 사진을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했으며, 국내 모집책인 남야공 출신 C씨는 최종적으로 이들 이집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 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순차적으로 판매한 뒤니지 및 베트남, 이집트 외국인 판매상 3명을 각각 특정해 추적, 이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이집트 판매상을 출국 직전 검거하는 등 3명

을 추가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채류종인 외국인 피의자들의 경우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생활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추적·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보이스포싱 범죄조직이 국내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상품을 낮은 이자상품으로 전환해 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포싱 범죄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조폭과 싸움·스토킹 30대 징역 2년

조직폭력배들과 싸움을 벌이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한호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24분께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조직폭력배인 B(22)씨 일당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국제PJ와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B씨 일행과 서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B씨 일행에게 골절상 등을 입혔다.

B씨는 일행과 함께 A씨를 붙잡아 폭행했으며 그가 휘두르던 방망이를 빼앗아 내려치는 등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사건 병합 선고를 받았다.

그는 연인 사이인 C(19·여)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1천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오복기자

"폭행 소극 대응 경찰관 징계 정당"

술자리에서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승원 부장판사)는 13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1명이 동석자인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원문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일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오복기자

제사나라 www.jesan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지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